

고고관(姑姑冠)에 관한 연구

- 『집사(集史)』를 중심으로 -

김 미 자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Go-go-kwan*(姑姑冠)

-With a Special Reference to 『*Jip-sa*(集史)』

Mi-Ja Kim

Professor, Dept. of Clothing Science, Seoul Women's University

(2008. 1. 17 투고)

ABSTRACT

A *Go-go-kwan* is a particular hat which has worn by married woman in Mongol and Yuan dynasty in China. It is also widely called as a *Boktak* in Mongol.

The *Go-go-kwan*, recorded in *Jip-sa* and in the miniature painting of 14th century is the early type of *go-go-kwan*. Later type can be seen from the relic collections of Gyeonggi Provincial Museum in Korea.

The *Go-go-kwan* is composed with three parts ; feather part, tube part and hat part. Among the feathers, the largest one is as long as four times of the length of the tube and the shortest one is half the length of the tube.

The tube is made of light weight wood such as white birch or bamboo, and covered with silk. Some of the hats were made exactly to fit on the head whereas others were designed to wear on the head as like *Jobawi*.

Key words: *Go-go-kwan*(고고관), Mongol(몽골), *Jip-sa*(집사), miniature painting(세밀화)

I. 서언

본 연구는 『집사』¹⁾에 나타난 고고관에 관한 연구이다.

고고관이란 몽골의 결혼한 여자들이 쓰던 특징 있는 모자로 몽골어로 북타크(Bogtac)라고 한다.

고려사에 姑姑는 부인 관의 명칭²⁾이라고도 하고 ‘고고리’라고도 하며 원나라에서 고려 왕비에게 사여한 기록이 있으며 와전되어 족두리라고도 하였다.³⁾

연구목적은 현재 알려진 고고관 유물들은 초기 형태와 다른데 언제 어떻게 달라졌는지 연구되어 있지 않았다. 『집사』의 삽화 중에 보이는 고고관은 고고관의 초기 형태를 알려주는 좋은 자료이며, 경기도 박물관 소장 출토유물 자료는 고고관의 초기 형태가 변화된 다음 단계의 것으로 착용법과 제작법을 알려주는 자료이므로 초기의 고고관과 변화된 고고관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 자료는 파리박물관 소장품인 『집사』의 삽화(miniature)인 세밀화(細密畫)⁴⁾와 경기도박물관 소장품인 원(元)대 출토유물 두 점과 보조 자료인 14세기 초기 토카프 박물관 소장품과 디에즈 앨범(Diez Album)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였다.

현재 몽골 묘에서 출토된 고고관 유물이 비교적 많으나 고고관 출토 상황⁵⁾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에서 출토유물 보고서를 구하기는 불가능하였고 분산되어 발표된 자료는 필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유감이었다.

II. 몽골의 고고관

1. 『집사』의 삽화에 보이는 고고관

『집사』의 삽화는 『몽골제국』의 5권에서 23점의 삽화를 참고하였는데 여자가 등장하는 삽화는 4점이고 총 14명의 여인이 모두 고고관을 쓰고 있었다. 징기스칸 시대(1206-1227), 그 아들 툴루이 시대(1292-1232), 툴루이의 아들인 몽케칸(1251-1259)과 훌레구칸 시대(1256-1265)의 비(妃)와 궁중여인들의 고고관에 대해 고찰한다.

고고관의 형태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윗부분은 깃털로 이루어졌고, 중간 부분의 위는 넓고 아랫부분은 좁은 원통과 비슷한 통형(筒形)인 관통(冠筒, 展筒), 아랫부분은 머리에 쓰는 모자(兜帽)인데 모자의 안쪽에 피(帔)라고 부르는 형질을 늘어뜨렸다.

고고관의 부분 명칭은 가새증(賈蠶增)의 논문⁶⁾(도 1)에 따른다. 고고관의 착용순서는 머리에 피가 달린 모자[兜帽]를 쓰고 모자 위로 관통을 모자에 달린 끈으로 묶어 연결시키고 관통 위에 영관(翎管)을 꽂고 영관에 영우(翎羽)를 끼우는데 영우와 영관의 이음 부분에 장식(翎飾)을 했다.

1) 징기스칸 시대(1206-1227)의 고고관

징기스칸 비(妃)와 두 명의 여인 총 3명 모두가 고고관을 썼다.

고고관의 구성은 깃털부분, 관통 부분, 피가 달린 모자의 세 부분으로 된 것은 같았고 깃털 색과 깃털 장식의 색이 달랐다.

깃털, 관통, 모자 순으로 고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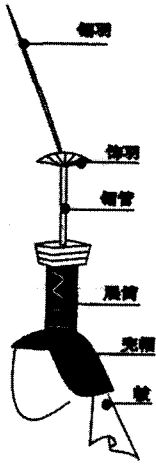
(1) 깃털

갈색 깃털 부분은 윗부분이 잘리지 않아 깃털 전체 길이를 알 수 있는 <도 2>는 관통보다 3.2배로 매우 길다. 긴 깃털은 영관에 끼웠고 끼운 곳에 등근 깃털 장식을 하여 연결 부분을 가렸으며 또 다른 등근 장식을 관통의 모정(帽頂) 모서리에 달았다. 흰색 등근 장식의 중심에 황색 장식을 끼우고 황색 중심으로 영관 끝 즉 깃털이 꽃혀진 곳이 지나갔다.

(2) 관통(冠筒)

관통의 길이는 문헌과 유물의 치수가 다양(표 1)하나, 동일한 시대 기록인 징기스칸을 방문했던 장춘진인(長春真人)이 쓴 『長春真人 遊記』에 고고관의 길이가 2척허(二尺許)라고 기록되어있는데 가새증(賈蠶增)은 약 57cm로 환산하였으므로 고찰해본다.

<도 2>의 징기스칸 부인의 고고관 깃털의 길이는 부인의 앉은키보다 짧다. 깃털의 길이가 관통의 3.2배(57cm×3.2배)이므로 182.4cm가 되며 이 치수는 키



<도 1> 고고관 세부명칭⁷⁾



<도 2> 징기스칸비의 꼭맞는 모자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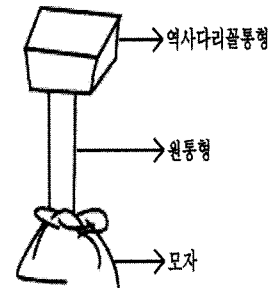
<도 3> 번기도(番騎圖)의 고고관
(긴 관통)⁹⁾



<도 4> 툴루이시대 고고관(긴깃털)¹⁰⁾



<도 5> 툴루이칸시대 비의 고고관¹¹⁾



<도 6> 역사다리꼴 관통

가 아주 큰 사람의 치수이므로 모자와 관통을 합친 길이라고 본다.

그러나 『원궁사(元宮詞)』의 약 42cm와 『출사몽고기(出使蒙古記)』(1253-1255)의 약 50cm도 긴 길이인데 오대(五代) 번기도(番騎圖)(도 3)로 미루어보면 긴 고고관의 관통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출사몽고기(出使蒙古記)』(1245-1247)의 112cm는 <도 4>와 같이 깃털길이가 관통보다 4배나 되는 매우 긴 고고관이라고 생각된다. 국가의 제도에 따라 정해진 길이도 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길이는 다양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워낙 큰 나라이므로 지역에 따른 특징과 시대에 따른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출토유물 중 내몽고 박물관 원대 소장품의 관통은 34cm이고 중국 개인 소장품은 27cm이며 경기도 박물관 소장품은 27cm, 30cm 였는데 깃털이 있었던 흔적이 있다. 원대 소장품의 관통길이가 34cm인 경우 깃털길이가 관통보다 3.2배 정도이므로 109cm가 되나 14세기 초기에는 1배, 1.5배, 2배, 3배로 짧아졌으므로 깃털 길이가 짧아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2배로 가정하면 62, 60cm가 된다.

관통은 전통(展筒)이라고도 하며 역사다리꼴 통¹²⁾ 아래에 원통이 연결된 것<도 6>과 같다.

관통의 색은 모두 홍색이다. 옷감은 그림으로 알 수 없으나 왕비와 궁녀(宮女), 귀부인이므로 금직이

〈표 1〉 고고관의 길이¹³⁾

年代	出處	作者/所有者	高度	換算尺寸
宋	《蒙鞑備錄》	孟珙	三尺許	약85cm
宋末元初	《必史·大義略叙》	鄭所南	二尺余	약57cm
元	《元宮詞》		尺五	약42cm
1221	《長春真人游記》	李志常	二尺許	약57cm
元	《吳下竹枝歌》	楊維禎	一尺	약28cm
元末明初	《草木子》	叶子奇	二尺許	약56cm
1253-1255	《出使蒙古記》	威廉·魯布魯訶 William of Rubruck	一腕尺 약18至22英寸(inch)	45.7-55.9cm
1245-1247	《出使蒙古記》	約翰·普蘭諾·加賓尼 John of Pano Carpini	一厄爾 약45英寸(inch)	약112cm
元	實物	內蒙古博物館收藏	34cm	
元	實物	私人保藏(中國)	38cm	
元	實物	私人保藏(韓國)	30cm	

나 견적물일 것이다. 장식은 징기스칸 비의 관통 사각형 통 좌우 끝과 원통의 상부 중앙에 진주 장식을 붙인 것 같은 흰색 흔적이 있다. 진주는 몽골인과 원나라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였다고 한다.

(3) 모자(兜帽)

머리에 꼭 맞는 조바위 형이다. 후색으로 말액과 같이 머리 둘레 부분을 만들고 머리 뒷부분을 홍색으로 연결하여 머리에 꼭 맞게 만든 모자로 경기도 박물관의 모자(도 20)와 비슷하다. 징기스칸 비의 모자 안쪽에서부터 피가 늘어졌는데 어깨를 덮는 길이다.

원형 장식이 이마 중앙에 있고, 길게 진주를 꿰어 양쪽 귀 부분에 등글게 돌려 뒤쪽으로 향했는데 이 방법은 경기도 박물관의 모자(도 20)에 마름모꼴 장식을 붙인 방법과 같다고 본다.

2) 불루이 시대(1292-1233)의 고고관

징기스칸의 아들 불루이의 비와 두 명의 여인 총 3명이 쓴 고고관은 형태는 같으나 깃털장식, 모자와 피의 색이 다르다.

(1) 깃털

깃털은 모두 갈색이며 깃털장식의 색이 흑색과 청색이다. 비보다 아래에 앉아있는 여인(도 4)의 고고관 깃털을 썬 결과 길이는 관통의 4배로 징기스칸

비의 깃털보다 더 길었으며 2명의 여인의 깃털도 비슷한 길이이다.

깃털 장식이 1개 붙어 있는데 청색 원형이며 중심에 홍색원이 삽입되어 있다. 영관에 깃털을 꿸고 연결 부분에 깃털장식을 붙였다.

(2) 관통(冠筒)

관통은 역 사다리꼴 통 아래에 원통이 연결된 것으로 본다.

앉아있는 여인 중 첫 번째 여인(도 4)의 관통은 직금(織金)이나 견직물로 짜다고 본다. 이유는 금색으로 그은 빗금선이 보였기 때문인데 빗살무늬 금직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옥좌에 앉아있는 불루이 칸의 비(도 5)도 <도 4>와 같이 금색으로 빗금을 그은 것인데 가새증(賈壘增)은 불루이칸의 역 사다리꼴 통 부분(도 5)을 그릴 때 <도 1>과 같이 정사각형 상자 3개를 쌓은 모양으로 표현하였다. 이것은 모사할 때 잘못 그렸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빗살무늬 역사다리꼴통으로 바로잡는다. 관통의 색은 모두 홍색이며 장식은 없다.

(3) 모자(兜帽)

모자와 관통을 연결할 때 모자 모정 부분에 달려 있던 질은 고동색 형겼으로 관통 밑을 감싸 관통이 잘 서도록 하였다. 모자는 징기스칸 시대 고고관(도 2)과 다르게 넉넉한 풍모형(도 15-1, 2)이며, 3명의



〈도 7〉 몽케칸시대 고고관¹⁴⁾



〈도 8〉 훌레구칸 시대 고고관(짧은깃털)¹⁵⁾



(도 9) 훌레구칸 비 모자 (피달림)¹⁶⁾

모자 형태가 같다. 모자색은 비는 황색, 두 여인은 녹색과 짙은 황색이다.

피는 어깨를 덮는 긴 길이로 장식은 없다. 모자 안에 고정된 방법이 보이지 않지만 〈도 14〉로 추측해보면 모자의 안쪽 정수리 뒷부분에 고정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박물관에 소장된 고고관(도 17, 19)의 피가 관통 들레부분 뒷쪽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아 이와 같았다고 생각한다.

3) 몽케칸과 훌레구칸 시대의 고고관

(1) 몽케칸(1251-1259) 시대의 고고관

블루이의 장남 몽케칸의 비와 두 여인이 같은 고고관을 썼다.

① 깃털

세 여인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같은 형태의 고고관(도 7)을 착용하였다.

깃털부분은 징기스칸 시대의 고고관과 같이 길며 관통보다 3.2배 길다.

깃털 장식은 검은색 원형장식 중심에 홍색원형이 삽입되어 있으며 홍색 원형의 중심을 깃털이 관통한다. 영관의 길이는 짧아 〈도 4, 5〉보다 낮게 장식되어 있다.

② 관통(冠筒)

관통(冠筒)은 홍색이며 역 사다리꼴 통 아래에 원통을 연결하였다. 역 사다리꼴 통 부분에 2개의 황색

원이 그려져 있는데 장식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③ 모자(兜帽)

모자는 툴루이칸 시대 것(도 4, 5)과 비슷한 풍모형이다. 모자 위에는 넓고 긴 형겅이 붙어 있는데 이것으로 관통과 모자를 묶어 연결시켰다.

첫 번째 앉아있는 여인은 연두색 도는 청색모자와 홍색 관통을 짙은 보라색 형겅으로 묶어 연결하였고, 두 번째 앉아있는 여인은 분홍색 모자와 홍색 관통을 짙은 보라색 형겅으로 묶어 연결하였다.

세 번째 앉아있는 여인의 흑색(짙은 회색) 모자에는 특이하게도 관통과 모자를 묶는 형겅이 없다. 화가의 잘못으로 그리지 않은 것인지, 새로운 디자인이 등장한 것인지 잘 알 수 없다. 세 여인의 모자에는 모두 화문 같아 보이는 금색 문양이 있다.

피는 모자 안에 고정시킨 형겅으로 어깨를 덮는 긴 것이다. 첫 번째 앉아있는 여인의 홍색 피는 황색 문양이 있는 금직 혹은 견직물로 만든 것 같아 보이는데 연두색 모자 안으로 부터 늘어져있다.

(2) 훌레구칸(1256-1265) 시대의 고고관

옥좌에 앉아있는 툴루칸의 3남 훌레쿠칸(1256-1265)과 비와 낮은 곳에 앉아 있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비는 모자만 썼고 여인은 고고관을 썼다.

① 깃털

〈도 8〉의 고고관에는 깃털부분이 관통의 1/2 정도로

아주 짧아 깃털장식만 꽃은 것 같으나 짧은 영관에 꽃잎 모양의 장식을 꽃은 것이다.

② 관통(冠筒)

관통(도 8)도 몽케칸 시대의 관통과 형태가 달라 삼각형을 거꾸로 놓은 것 같다.

③ 모자(兜帽)

홀레구칸 비의 흑색 모자(도 9)는 틀루이 칸 시대와 몽케칸 시대의 고고관(도 4, 5, 7)과 같은 형이며, 황색 문양이 있는데 <도 7>의 여인의 모자에 있는 무늬와 같다.

모정에 홍색 형겘이 달려 있는데 이곳에 관통을 넣고 홍색 형겘으로 묶었다고 생각된다. 관통과 모자를 연결하는 방법과 피가 모자 안쪽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홍색 피는 모자의 모정부터 어깨를 덮는 긴 길이이다. 옷감은 황선 금색 무늬가 있는 금직이나 견직물로 보인다.

여인이 쓴 고고관(도 8)의 관통과 모자는 짙은 자주색 형겘으로 묶어 연결하였는데 관통 정수리에 큰 꽃잎모양의 장식이 꽃혀있다. 피는 짙은 자주색이며 어깨를 덮는 길이이다.

피가 달린 모자만 쓴 홀레구칸의 비(도 9)와 짧은 깃털이 꽃힌 고고관(도 8)을 쓴 여인은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였다고 본다.

2. 14세기 초기의 고고관

디에즈 앨범(Diez Albums)의 삽화 3점¹⁷⁾과 일칸국 궁중의식장면 2점¹⁸⁾은 모두 14세기 초라는 기록만 있으므로 삽화별로 14세기 초기의 고고관을 고찰한다.

1) 디에즈 앨범의 삽화 3점 중 즉위식 장면에 등장하는 네 명의 여인은 형태가 거의 비슷한 고고관을 썼는데 다른 점은 장식의 유무(有無)와 장식품이 달린 위치에 따라 구분된다.

첫 번째 여인이 쓴 고고관(도 10)의 깃털 길이는 관통과 비슷한 길이로 징기스칸 시대 깃털(도 2)보

다 짧고 특이한 장식이 많이 달려있다. 깃털의 영관 부분에 흑색 작은 원형 장식이 2개씩 달려 있는데 앞에서 보면 날개를 편 새 같아 보이나 흑색 원형 양 끝에 무언가가 달려 있는 것이며 중앙에는 청색 원형이 박혀있다.

또 다른 흑색 원형 깃털 장식이 영관 끝과 관통 모정 끝에 달려 있는데 깃털 장식 크기가 큰 편이며 중앙에 홍색원형이 끼워져 있다. 연홍색 관통은 징기스칸 시대의 관통(도 2)과 다르게 보인다.

징기스칸 시대 관통이 역사다리꼴통과 원통 2개가 연결된 것인데 <도 12>는<도 11>과 같이 역사다리꼴통과 원통이 연결될 때 상, 하 2개가 연결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원통에는 장식이 둘러져 있다.

관통과 모자는 같은 옷감, 같은 색으로 보이며 관통과 모자가 연결된 부분도 같은 색 형겘으로 묶어 고정하였다. 관통의 중앙부분에 보석 장식이 있는데 보석 이름은 알 수 없다. 모자 뒤쪽에 장식 같은 것이 있으며 깃털에 귀걸이 같은 것이 늘어져 있다. 홍색 피는 길이가 길어 어깨를 덮었다.

2) 디에즈 앨범의 또 하나의 즉위식 장면으로 비와 여인 3명이 등장하는데 고고관의 형태는 같으나 깃털에 깃털장식이 2개 달려 있는 것(도 12), 1개 달려있는 것, 아주 없는 것이 있다.

비의 고고관(도 12)중 깃털부분은 관통보다 2배이지만 징기스칸 시대의 고고관보다 짧다. 장식은 큰 원형 2개가 달려 있는데 흑색 원형 중앙에는 홍색 원형이 끼워져 있는 것이 <도 10>의 깃털장식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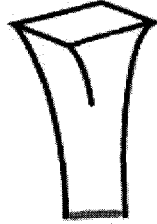
두 번째 앉아있는 여인의 고고관에는 흑색 원형 장식이 1개 달린 관통과 같은 길이인 짧은 깃털이 꽃혀있고 첫 번째 앉아있는 여인은 깃털 없는 고고관을 쓰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관통은 모두 홍색이며 <도 11>과 같은 고고관으로 보인다.

모자는 모두 홍색이며 모자위에 달려 있는 분홍 형겘으로 관통과 모자를 묶어 고정하였다. 피는 어깨를 덮는 긴 길이이다. 큰 귀걸이가 깃털에 끼워져 있다.



<도 10> 즉위식 다양한 깃털장식¹⁹⁾



<도 11> 도12를 입체로 그림



<도 12> 즉위식 깃털장식 2개²⁰⁾



<도 13> 연회준비(가늘고 긴 막대기깃털)²¹⁾



<도 14-1> 일칸국의 궁중의식, 진주 장식, 피의 고정방법²²⁾



<도 14-2> 진주장식²³⁾

3) 디에즈 앨범의 연회준비 장면에서 의자에 앉아 감독하는 한 여인이 고고관(도 13)을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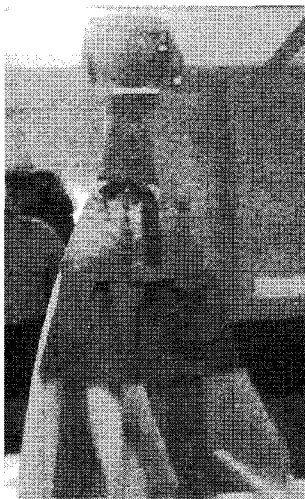
깃털의 길이는 관통 보다 1.5배 긴 데 징기스칸 시대 보다 많이 짧아졌다. <도 10>과 같이 영관에 흑색 작은 원형 3개를 꿰었고 깃털을 꽂았는데 깃털이 아니고 가늘고 긴 막대로 보인다. 가늘고 긴 막대 3개가 깃털 장식 중심을 꿰뚫었다. 원형 깃털 장식은 영관과 깃털 꽂는 부분에 달아 연결 부분을 가렸음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또 다른 흑색 원형 깃털장식을 사각형 모정의 모서리에 달았다. 깃털장식은 흑색 원형 중심에 홍색을 끼웠는데 <도 10, 12, 13, 14-1, 2>와 같다.

관통은 홍색으로 <도 11>과 같은 형태이다. 관통과 모자는 모정 끝에 달린 분홍색 형겅으로 묶어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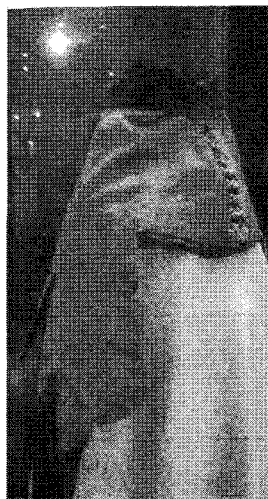
결하였다. 관통, 모자, 피는 홍색이며 같은 옷감이다. 피는 어깨를 덮는 긴 길이다.

4) 일칸국의 궁정의식 장면은 옥좌에 앉아있는 칸과 비, 궁녀, 귀족, 상인들이 묘사되어있다.

비 외에 15명(도 14-1, 2)이 모두가 같은 색, 같은 형태의 고고관을 썼는데 깃털의 길이는 관통과 비슷한 길이이며 2개의 깃털장식이 달려있다. 영관에 작은 원형장식이 2개 꿰어져있고, 영관과 깃털장식이 연결되는 부분에 흑색 큰 원형이 장식되었고 약간 작은 흑색 원형장식이 관통 모서리에 장식되었다. 영관에 꿰어진 작은 장식은 <도 10>과 같이 흑색 원형 양 끝에 무엇인지를 달아 마치 날개 편 새와 같은 형상으로 보인다. 흑색 원형 장식은 중앙에 홍색 원



〈도 15-1〉 출토유물 고고관
(홍콩개인소장)



〈도 15-2〉 풍모형 모자
(홍콩개인소장)

형을 삼입한 것으로 2개의 크기가 달랐다.

관통은 홍색으로 〈도 11〉과 같은 고고관으로 보인다. 진주장식이 모정의 가장자리에 장식된 것(도 14-1, 2) 관통 하단 중앙에 장식이 붙어 있는 것, 모자 가장자리(도 14-2)를 장식한 것 등 다양하며, 원통에 검은색 끈 같은 것을 둘러 장식한 것도 있다.

모자는 홍색이며 홍색 형겘으로 모자와 관통을 묶어 고정 시켰다. 모자 뒷부분에 검은 장식이 있는데 형겘 단추 9개를 붙인 출토유물(도 15-1)의 풍모로 미루어 혹시 단추는 아닐까 생각해 본다.

피는 어깨를 덮는 길이로 길다. 큰 귀걸이를 했고, 모자에 달려있는 진주 끈을 턱 밑에서 맨 사람(도 14-2)이 대부분이나 칸의 비(도 14-1)와 몇 사람이 마름모꼴 진주장식을 턱 밑에서 매었는데 끈은 형겘 끈이라고 생각되는데 경기도 박물관 모자(도 20)의 마름모꼴 진주를 장식한 형겘과 턱 밑에서 매는 끈을 보면 알 수 있다.

칸의 비와 몇 사람(도 14-2)은 고고관의 모정과 모자의 가장자리를 진주로 장식한 화려한 고고관을 착용하였다.

5) 라시드 앳딘이 1330년에 편찬한 『역사의 개략』²⁴⁾의 삽화(도 18, 19)에 칸의 비와 19명의 여인이 형태

가 같은 고고관을 썼다.

깃털의 길이는 관통보다 2.5-3배로 징기스칸 시대의 깃털보다 짧다. 깃털 장식은 큰 편이고 비의 고고관에는 2개가 달려 있고 나머지 19명의 고고관에는 깃털장식이 1개가 달려 있다. 혹시 계급의 차이는 아닐까 생각해 본다.

관통의 색은 흑백 삽화이므로 알 수 없으나 형태는 〈도 11〉과 같은 고고관으로 보인다.

모자는 툴루이 시대(도 4)의 모자와 비슷하며 관통과 모자는 모자위에 붙어 있는 형겘으로 묶어 고정 하였다. 피는 어깨를 덮는 긴 길이이다.

Ⅲ. 경기도 박물관 소장 고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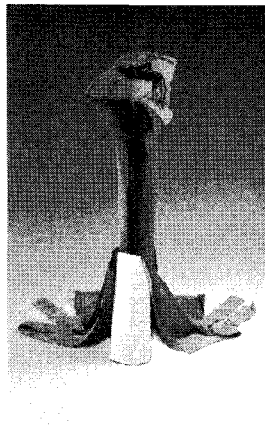
경기도 박물관에는 원대(元代) 출토유물 자작나무 고고관 2개(도 17, 19)가 소장되어 있는데(유물번호 6037, 참 823) 깃털부분이 떨어져 나갔고 모자도 없다.

모자는 한 개가 있으나 트여있는 모정의 둘레(22.5cm)가 두 개의 고고관의 관통둘레(29cm, 28cm)보다 작아 관통을 모정에 맞추어 고정시킬 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두 개의 관통보다 작은 관통과 함께 쓴 모자로 보인다.

이 고고관을 사용했던 시대의 관통과 피를 고정시



<도 16> 일칸국의 궁중의식²⁵⁾



<도 17> 유물번호 6037
원대 고고관 출토유물
(경기도박물관 소장)



<도 18> 내몽고 박물관 소장 원대
고고관²⁶⁾

키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출토유물 2개의 관통과 모자를 고찰한다.

1. 유물번호 6037 고고관 (도 17)

유물번호 6037 자작나무 고고관의 관통은 라로 짚으며 모정의 형태는 직사각형(12×24cm) 네 모서리를 1cm씩 둥글린 타원형이다. 중앙에 대나무 조각과 자주색 명주 리본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깃털꽂이를 리본으로 고정된 흔적이다. 관통길이는 30cm이고, 하부 끝은 둘레가 29.2cm인 원형이며 상부 앞 중앙에 장식이 달려있다.

고고관의 관통 속을 자세히 볼 수 없지만 내몽고 박물관 소장 관통²⁷⁾(도 18)을 참고하여 유추해보면 넓이 15cm, 길이 30cm 크기의 자작나무 2편을 밑에서 19cm까지 꿰매 붙여 원통을 만들고 나머지 11cm를 양쪽으로 24cm만큼 벌리고 (한편 12cm) 넓이 15cm의 양쪽을 1.5cm씩 구부린 후 형겼으로 싼 다음 또다시 홍색 명주로 싸면 모정은 타원형으로, 관통의 하부 끝은 원형으로 된 관통을 만들 수 있다.

관통 하부 끝에 화문라 피가 고정되어 있는데 피는 13-14세기 초에도 모자에 붙어 있었으나(도4-도16) 어느 때 인지 경기도 박물관 소장품처럼 관통 하부 둘레에 고정된 것으로 보이며, 거의 동시기에

관통과 모자를 묶었던 형겼도 묶어 고정시키는 기능을 잃게 되어 없어졌다고 본다.

피는 넓이 36.5cm, 길이 43cm인데 2폭으로 되었고 원통 앞부분에 8.5cm를 남기고 나머지 둘레에 고정시켰는데 뒤 중심에 맞추름을 잡고 좌우에 각각 3개씩 주름을 잡았다. 겹 명주 끈 4개(4×59.5cm)가 관통 뒤 중심부분에 나란히 달려있다.

2. 유물번호 참 823 고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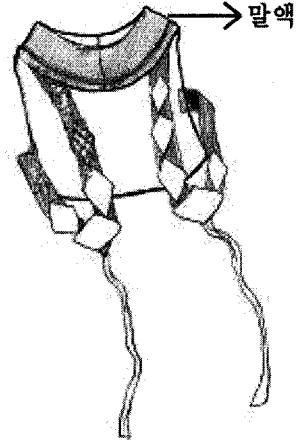
참 823 고고관(도 19)의 관통 형태는 유물번호 6037(도 17)과 같으나 원화문라(圓花紋羅)로 짚으며 크기가 약간 작다.

모정은 직사각형(10×23.5cm)의 네 모서리를 약간 둥글린 타원형이며, 중앙에 나무로 된 깃털꽂이가 고정되어 있는데 리본으로 고정된 깃털꽂이를 단단하게 묶었다.

관통 제작법은 유물번호 6037과 같았다고 보며 크기만 작다. 관통 하부 끝에 넓이 52cm, 길이 49cm의 1폭으로 된 주로 만든 피가 앞부분 7cm를 남겨두고 나머지 원통둘레에 고정되었는데 뒤 중심에 넓은 맞추름(8cm) 하나를 잡고 좌우로 각 1개씩 넓은 주름을 잡았다. 겹 명주 끈 4개(4×49.5cm, 4×61.5cm)가 뒤 안쪽 중심 부분에 짧은 끈, 긴 끈, 짧은 끈, 긴 끈



<도 19> 유물번호 참 823.
원대 고고관 (경기도박물관 소장)



<도 20> 모자. 원대 출토유물
(경기도박물관 소장)

순서로 나란히 달려있다.

3. 모자(兜帽)

모자(도 20)의 형태는 징기스칸 비(도 2)의 모자와 비슷해 보인다. 넓이 5cm 말액(抹額) 뒤쪽에 넓이 15.7cm, 길이 17.2cm 형겼을 붙였는데 말액은 자주색 주(紬)이고 2겹이며 쌍밑이 장식 2줄이 장식되어 있다. 뒤에 붙은 형겼은 열은 고동색 주이며 겹이다.

마름모꼴 진주장식이 장식된 끈(2cm×30cm)이 좌우 귀부분까지 늘어졌는데 18cm 내려온 부분에 좁은 형겼 끈(1cm×20.5cm)을 달아 턱밑에서 매었으며 진주 장식이 붙은 끈을 뒤로 꺾어 모자 뒷부분에 붙였다.

마름모꼴 진주 장식은 좁쌀진주를 가득 박았으며 좁은 끈(2cm×30cm)에 5개 붙였다. 길이가 2.5cm인 정삼각형 2개를 붙여 만든 마름모꼴 3개와 3cm 정삼각형 2개를 붙여 만든 마름모꼴 2개인데 위에서 3, 4 번째에 큰 것 2개가 붙여있다. <도 14-1>의 마름모꼴 진주장식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IV. 결론

1. 고고관은 깃털부분, 관통(冠筒)부분, 모자부분 3

부분으로 구분된다.

2. 고고관의 초기 형태는 『집사』와 14세기 초기 삽화로 알 수 있고 초기 형태가 변형된 다음단계는 경기도 박물관 유물로 알 수 있다.

3. 깃털은 13세기(징기스칸 시대-몽케칸 시대)에는 관통의 2.5배~3배 되는 긴 것이 사용되었고, 14세기 초기에는 관통의 2.5배, 3배로 긴 것과 관통과 같은 길이로 짧은 것도 있으며, 제일 짧은 것은 훌레구칸 시대의 1/2 길이이다.

4. 깃털의 재료는 『집사』에는 깃털만 보였으나 14세기 초기 삽화에는 막대기 같아 보이는 것도 있다.

5. 깃털장식은 원형이며 1개 혹은 2개 달린 것, 장식이 없는 것과 작은 장식과 함께 사용한 것도 있으며 깃털장식의 재료는 잘 알 수 없다.

6. 관통은 13세기의 것은 역사각형꼴통과 원통을 연결했고 14세기 초의 것은 <도 11>과 같이 하나로 연결한 것으로 보이나 모정이 사각형이고, 14세기 초 이후의 경기도 박물관 것은 타원형인 것이 다르다.

7. 모자는 징기스칸 시대는 말액에 뒷자락이 있는 머리에 꼭 맞는 형으로 조바위의 원형으로 보이며, 경기도 박물관 모자와 유사하다. 툴루이 시대와 그 이후의 모자는 모두 넉넉한 풍모형(도 15-2)이다.

8. 피(帔)는 13세기, 14세기 초기에 모자의 모정 뒤쪽에 고정되었다가 언제부터인지 경기도 박물관의

원대 유물과 같이 얼굴이 나올 정도인 7~8.5cm만 남기고 관통 둘레에 고정되었다.

9. 모자와 관통을 연결하는 방법은 13세기와 14세기 초기에는 모자 윗부분에 달린 hing으로 매어 묶었으나, 경기도 박물관 고고관은 관통 밑 둘레에 피가 고정되었고 모자를 위에 쓰게 되었다. 모자 위의 hing이 없어졌는데 묶는 기능이 쇠퇴한 것이다.

10. 장식에 사용했던 보석의 종류는 삼화로는 진주장식 밖에 식별할 수 없었다.

11. 진주로 장식한 마름모꼴 장식은 경기도 박물관 모자에 달린 마름모꼴 장식의 제작법과 용도가 같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1) 『集史』는 일칸국의 제 7대 가잔칸이 1300년에 라시드 앳딘(Rashid Addin:1247-1318).페르시아인 학자, 칸의 최측근 재상에게 징기스칸의 역사(몽골제국사)를 편찬하도록 명령하여 1310년에 완성된 『집사』는 페르시아어로 집필되었으며, 제 1권은 몽골사, 제 2권은 세계사, 제3권은 지리편이다. 『집사』는 명쾌한 문체, 객관적인 사관, 광범위한 지식에 의해 쓰여진 세계사이며 이란 문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현재 『집사』는 사본이 세계 각지의 문서관, 도서관에 보존되어 있는데 인용된 『집사』는 파리 국립도서관 사본으로 14세기에 집필된 것으로 삼화가 많이 있다. "삼화를 그리기 위하여 중국 화가와 몽골화가를 초청해갔다"고 한다. 『집사』는 몽골군주의 칙령과 후원을 받아 집필된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라져버린 원자료들을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어 정확하고 상세하며 진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2) 김미자 (2003). 元의 雲肩에 관한 연구. 복식, 53(2), p. 129. 라시드 앳딘 저, 김호동 역주 (2002). 라시드 앳딘의 집사 1. 부족지. 사계절, p. 11. 『고려사』열전 권2. 후비2. 숙창원비 김씨
- 3) 유희경 (1975). 한국복식사 연구. 이대출판사, p. 207.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동국부녀수식 변증설 재인용.
- 4) 세계역사사리즈 12 (1970). 몽골제국. 동경: 세계문화사. 歷史讀本 World (1991). 특집-징기스칸과 몽골제국. 동경: 新人物往來社, 3월호. 原色.圖說 (1982). 大世界史. v.2. 아시아 國家의 展開. 서울: 태극출판사. E. Blochet (1975). *Musulman Painting*. 12C-17C, Hacker Art Books(New York) 金益達 (1964). 세계문화사Ⅲ. 유럽중세의 아세아의 발전. 서울: 학원사. 週刊朝日百科 (1989). 世界の歴史, 51, 53. 동경: 朝日신문사.
- 5) 소련의 고고학자들은 옛 알탄오르토의 근거지였던 이질바른(불가강) 유역 주변에 있는 몽골 묘에서 20개

정도의 복타크 모자를 발굴했다. A 웨도르프-다브이도프 (1966). 앞의 책, p. 36. 메데스 (1988). 1989년 초원지대 고고학 답사반의 연구보고서. 테바이에저 저 박원길 역 (1994). 몽골석인상의 연구. 해안, p. 74. 1988년과 1989년에 몽골학자들은 삼하(三河) 유역에서 13c-14c 몽골인들의 무덤에서 많은 복타크 모자를 발견하였다. 메데스. 앞의 책, p. 74 재인용. 1974년 내몽고 문화재 고고학대원들이 烏盟四子王旗烏蘭花鎮왕 묘, 梁元代 汪古部 貴族陵園에서 1개의 고고관 발굴하였다. 高春明 (2001). 中國服飾名物考. 상해출판사, p. 222. 미국 Anther Leeper씨 소장 고고관 유물. 林建 漳縣元江氏家族墓출토. 冠服新探, p. 185. 내몽고박물관 소장유물 고고관인 내몽고達爾罕茂明安聯合旗出土 고고관. 中國織繡服飾全集 (2004), p. 132. 홍콩 개인소장 두 점 경기도박물관 소장품 두 점

- 6) 賈麗增 (2005). 罽毘冠形制特征及演變考. 絲綢之路与元代藝術. Hong Kong: ISAT/Costume Squad Ltd, p. 224.
- 7) 위의 책, p. 224.
- 8) 歷史讀本 World (1991). 앞의 책, p. 183. 원색도설 대세계사 2 (1982). 앞의 책, p. 323.
- 9) 中國織繡服飾傳集 4. 歷代服飾, 卷4, p. 101.
- 10) 歷史讀本 World (1991). 앞의 책, p. 21.
- 11) 위의 책, p. 21.
- 12) 사다리꼴을 뒤집어 놓은 모양인데 이것을 앞으로 역사다리꼴통이라고 한다.
- 13) 賈麗增 (2005). 앞의 책, p. 215.
- 14) 세계역사사리즈 12 (1970). 앞의 책, p. 25.
- 15) 歷史讀本 World (1991). 앞의 책, p. 22.
- 16) 위의 책, p. 22.
- 17) 디에즈 앨범(Diez Albums) 중 즉위식 장면에는 칸의 이름이 없어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다.
- 18) 일칸국의 궁정의식을 묘사한 삼화는 토카프 박물관 소장품으로 옥좌에 앉아있는 칸과 부인 궁녀, 귀족, 상인들이 묘사되어 있다.
- 19) Linda & Carboni, Stefano(eds.). Komarff (2002). *The Legacy of Genghis Khan*. Metropolitan Museum of Art, p. 88.
- 20) *ibid.*, p. 80.
- 21) *ibid.*, p. 82
- 22) 週刊朝日百科 世界の歴史 (1989). 앞의 책, 51, A328.
- 23) 위의 책, A328.
- 24) 토카프 궁전 박물관 소장품
- 25) Linda & Carboni, Stefano(eds.). Komarff, *op. cit.*, p. 82.
- 26) 중국직수전집편찬위원회 (2005). 中國織繡服飾傳集, 4. 歷代服飾卷4. 천윤인민미술 출판사, p. 132.
- 27) 위의 책, p. 132. 원대 고고관이 내몽고(達爾罕茂明安聯合旗出土)에서 출토되었으며 내몽고 박물관 소장품인데 관통은 2편의 나무 조각을 마주대고 %정도까지 뒤편 후 나머지 %정도를 벌려서 원화문 직물을 붙인 것이다.